

# ‘밀레니얼 세대’ 부상…소비 트렌드 변화

오늘부터 20마리 굴비 ‘한 두름’ 사라지고 14마리 엮어  
소포장·저중량 과일 등 신선식품 코너에 고객 발길 부쩍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세대)가 강력한 소비자층으로 부상하면서 굴비 식구도 줄어들었다.

앞으로 백화점·마트 등의 수산 코너에서 ‘굴비 한 두름’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 예정이다.

2인·3인 등 소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4인 가구의 식탁에 맞춰 계량된 ‘굴비 한 두름(20마리)’ 대신 14마리를 한 세트로 한 ‘1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타현황에 따르면 2인 가구는 전년 동기 대비 4.19% 늘어난 22.45% 비중을 차지했으며, 3인 가구는 0.63% 늘어난 18.03%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반대로 올해 2월 기준 4인 가구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16.85%로 집계돼 최근 1년간 가족 구성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19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부부 중심의 2인 또는 3인 가족으로 구성된 ‘밀레니얼 가족’을 사회 트렌드 키워드로 선정하기도 했다.

가족 구성원이 줄어드는 사회적 현상은 백화점 식품관의 신선식품 포장에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소포장·저중량 과일/채소 등이 신선식품 코너에서 고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실제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체 신세계백화점 청과 코너에서는 기존 3kg 내외의 박스 단위 과일 상품 대신 1kg 이하의 소단위 팩포장 상품과 날개 판매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23% 가량 신장했다. 이에 따라 소포장·날개 판매 상품 수를 지난해보다 13% 가량 늘렸다.

수박의 경우 7~8kg 크기의 큰 수박 2kg 내외의 특수 수박 또는 조각 상품으로, 800g~1kg 사이 팩포장으로 판매하던 체리 등의 과일도 300g~500g 사이로 줄이는 등 소포장 과일

이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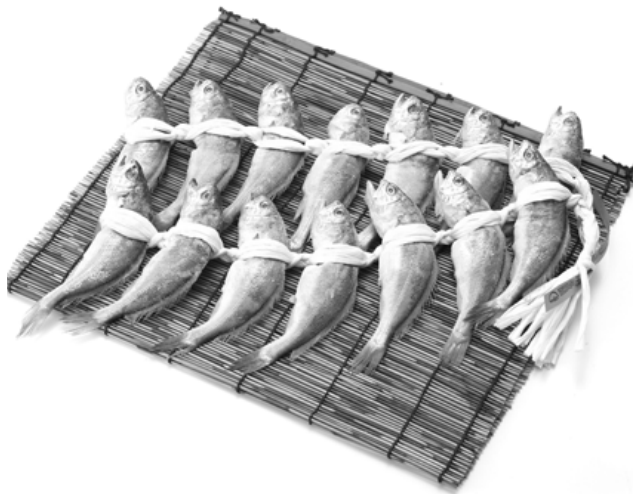
또 야채의 경우 4개를 묶어 판매하던 파프리카도 3입 상품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미니 파프리카, 미니 단호박 등 ‘미니 어쳐 상품’도 최근 각광받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17일부터 굴비를 세는 고유명사인 ‘두름’이란 단위를 없앴다.

소가족 중심의 사회 트렌드에 맞춰 굴비 20마리를 묶어 판매하던 두름 대신 14마리를 묶은 ‘1억음’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굴비 한 세트를 의미하는 ‘두름’은 조기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마리씩, 두 줄로 엮은 것으로 4인 이상의 식구가 한 끼에 3~4마리씩, 최대 두 달에 걸쳐 소비하는 양이다.

하지만 2인 또는 3인 중심의 밀레니얼 가족에게 있어 길게는 3개월 이상에 걸쳐 소비하는 한 두름은 굴비의 양과 더불어 보관시 상품의 훼손, 냄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구매를 망설이게 했다.

이에 신세계는 밀레니얼 가족도 두 달 내에 맛있게 굴비를 소비할 수 있도록 14미(1억음)와 10미 등으로 굴비의 수량을 조정해 굴비 소비 촉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봉 굴비 14마리(1억음)

또 1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신세계 햇 굴비 대전’을 열고 붓굴비 2호 10만8천원(1.4kg/14미/정상가 15만5천원), 참굴비 3호 5만6천원(1.2kg/14미/정상가 9만4천원) 등 최대 40% 할인된 가격에 햇 굴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최택열 광주신세계 식품팀장은 “2인·3인 등 세분화돼 가는 가족 구성 트렌드에 맞춰 소포장 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맛 좋은 상품을 더욱 많이 기획해 산지와의 상생은 물론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 선도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 롯데백화점 광주점 ‘디자인 리빙페어’ 개최

지역 유통업계 최초…19일까지 진행

매년 서울에서만 열리는 ‘디자인 리빙페어’가 광주에서 올해 처음으로 열려 가정주부들의 관심이 롯데백화점에 쏠리고 있다.

16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오는 19일까지 지역 유통업계 최초로 ‘디자인 리빙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서울 디자인 리빙페어’를 모티브로 했다.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 김창수 바이어가 직접 선별한 라이프 스타일의 제품과 컨셉트 및 인기 디자인 상품들을 다양하게 선보인다.

지역 백화점 리빙 매출이 올해도 22.5% 신장하는 등 작년에 이어 리빙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관련 시장 선전에 나서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행사 테마는 고객의 관심도가 높은 홈스타일링, 프리미엄 키친, 홈퍼니싱 3가지로 구성됐다. 홈스타일링관에서는 ‘비엔토’, ‘미무’ 등의 서울 유명 리빙페어

전문 브랜드가 밀레니얼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리빙 라이프 트렌드를 선보이며, 프리미엄 키친관에서는 독일, 영국, 미국의 주방·식기 브랜드의 인기 아이템을 30~60% 할인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홈퍼니싱관에서는 ‘에이스침대’와 ‘다우닝소파’의 진열 특가 상품들을 합리적

인 가격에 판매한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상생의 일환으로 지역 브랜드들을 대거 참여시켰다.

순천을 연고로 한 ‘디오르센트’는 SNS 유명 리빙소품 브랜드로 캔들과 디퓨저 등 아가자기한 소품류를 선보이고, 대전의 ‘신현공예’는 SBS 프로그램인 생활의 달인에 소개된 50년 경력의 목공장인이 만든 우드도마 등 주방 소품류를 출현한 다.

/임후성기자



디자인 리빙페어를 기획한 롯데백화점 호남충청지역 김창수 바이어가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

## 롯데아울렛 남악점, 소전원에 에어컨 전달

롯데아울렛 남악점 사롯데봉사단은 지난 14일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한 아도동보육시설 소전원을 방문해 여름 맞이 대청소와 무더위를 시원하게 보낼 수 있

는 에어컨을 전달했다.

이날 사롯데봉사단원들은 복지관을 돌며 구석구석 묵은 때 청소와 여름철 사용할 선풍기 등을 청소했으며, 아이들

이 무더위 여름을 좀 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도 진행했다.

도혜경 소전원 원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에 감사하다”며 “무더위 속에서 올 여름은 아이들이 좀 더 시원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임후성기자

## 삼성전자, 식기세척기 신모델 출시

‘한국형 바스켓’ 적용…1회 사용시 전기요금 84원

삼성전자는 최근 국내 시장에 증가하고 있는 4인 이하의 소형 가구에 최적화된 용량과 슬림한 디자인의 식기세척기 신제품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가족이 식기를 쌓아 두지 않고 그때그때 세척하기 가장 적합한 용량으로, 좁은 공간에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제품 대비 폭을 150mm 가량 대폭 줄여 450mm의 슬림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1회 사용할 경우 84원 정도의 전기 요금이 발생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사용하면 2천520원 정도밖에 들지 않는다.

또한 손 설거지를 할 때와 비교하면

물 사용량이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 경제적이다.

이번 신제품은 오목한 밥그릇과 국그릇 등 한국형 식기를 넉넉하게 넣어 세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국형 바스켓’이 적용됐다.

뿐만 아니라 수저통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팬, 냄비 등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조리 도구를 효과적으로 배치해 세척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밖에 ▲놓여붙은 밥풀이나 양념까지 세척할 수 있도록 돕는 ‘블립’ ▲누수 발생을 모니터링해 급수를 차단하는 ‘누수방지’ ▲75℃의 고온으로 기름까



지 말끔하게 세척해 주는 ‘고온헹굼’ ▲식사 시간 중 대화를 방해하지 않는 수준의 저소음 등 소비자를 배려한 다양한 기능이 탑재됐다.

삼성 식기세척기 신제품은 8인용 단일 용량에 싱크대나 부엌 가구와 일체감 있게 설치할 수 있는 ‘빌트인’, 공간 제약 없이 독립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프리스탠딩’의 2개 모델로 출시되며, 출고가는 69만원이다.

/임후성기자

## “도심 속에서 태교여행 즐기세요”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베이비문 패키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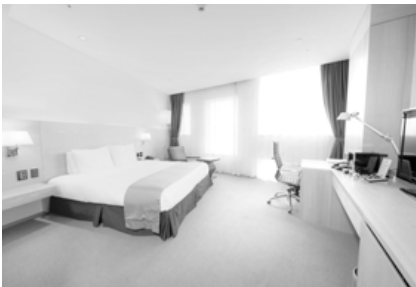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은 도심 속에서 태교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베이비문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는 출산을 앞둔 예비 엄마들이 호텔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객실 1박과 함께 맘스 터치 리어바디 트리트먼트, 생과일주스&빵 세트 2인으로 구성됐다.

특히 호텔 2층에 새롭게 오픈한 호남

권 최초 오리지널 럭셔리 스파 브랜드 ‘스파 소베(Spa SOBE)’의 임신부 전용 ‘맘스 터치 리어바디 트리트먼트’가 포함돼 임신 중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 기능이 저하돼 생긴 부종과 균형 깨진 피부 밸런스에 도움을 준다.

패키지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은 피트니스센터 및 실내 수영장, Wi-Fi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패키지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2인 기준 29만9천원(세금 및 봉사료 미포함)이다. 자세한 문의와 예약은 전화(062-610-70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임후성기자



##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